

---

#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행복했을까?: 베네수엘라 사회의 고질적인 분열상<sup>1)</sup>

일테브란드 브레우에르

베네수엘라 센트랄대학교(UCV) 국제법 교수

---

원제와 출처: Hildebrand Breuer, “¿Eramos felices sin saberlo? Viejas y nuevas fracturas en la sociedad venezolana”, *Nueva Sociedad*, No. 257, mayo-junio de 2015, pp.15-26.

핵심어: 호세프, 탄핵, 노동자당, 브라질민주운동당, 부정부패, 권력투쟁,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베네수엘라는 정확하게 둘로 찢어진 국가다. 하나는 지배계급만의 나라요, 또 다른 하나는 소외된 민중의 나라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실패했다. 사회는 파편화되었으며, 통합의 필요성 또한 매우 절박하다. 베네수엘라에서 통합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발전했다.”<sup>2)</sup> 오로페사(Oropeza)가 15년 전에 진단한 이런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그

---

1) 이 글은 2015년 6월에 발표된 것으로, 2015년 12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옮긴이.

2) Carlos Zubillaga Oropeza, *La marginalidad sin tabúes ni complejos. Una propuesta urgente para un país dividido*, Gonzant, Caracas, 2000.

렇다고 해서 오로페사를 차베스주의자라고 비난하기는 힘들다. 오늘날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간단하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오로페사는 역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려는 시도 역시 경계했다.

모든 사회현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수많은 인자와 색조로 가득 차 있기에 한정된 지면 내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글에서 베네수엘라의 최근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시급한 정치 과업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차베스주의가 탄생한 20세기 말 베네수엘라의 상황부터 다룰 것이다. 이후 차베스주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분열된 좌파세력이 향후 감당해야 할 책임을 논할 것이다.

## I. 권력분점체제의 붕괴

먼저 1999년 우고 차베스 정권이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공교육 시스템 평가 결과와 사회공공비용 및 정치참여지표이다. 이런 지표야말로 차베스주의를 상징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집권 이후 사회공공비용을 증액했고, 로빈슨 사업과 리바스 사업<sup>3)</sup>을 통해 교육사업에 주력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 공동체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3) 로빈슨 사업(Misión Robinson)은 문맹퇴치 사업이며, 리바스 사업(Misión Ribas)은 중등교육 사업이다 - 옮김이.

먼저 교육 부문부터 살펴보자. 문제는 개혁정책의 내용보다는 소통 부족에 있었다.<sup>4)</sup> 그 때문에 강의실은 한때 차베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무대로도 사용되었다. 여기서 잠시 20~30년 전의 베네수엘라 초등교육 실태를 살펴보자.<sup>5)</sup> 유엔은 1980년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했는데, 베네수엘라의 9세 아동은 읽기 평가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인의 읽기 평가 역시 27위로서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보츠와나와 함께 최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초등교육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최하위권이라는 성적이 아니라 불균등한 학업성취도였다. 1991년 국립교육센터(Cenamec)는 학생의 연산 능력을 평가했는데, 총 20점 만점에서 사립학교 학생은 평균 10점을 획득한 반면, 공립학교 학생은 평균 4점을 획득할 정도로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의 차이는 심각했다.<sup>6)</sup>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계층 이동 수단으로 간주하던 교육이 사실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변모한 것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의 사회공공비용과 관련된 지표 역시 절망적이었다. 1990년대 내내 베네수엘라의 사회공공부문 예산비율은 라틴아메리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GDP의 평균 11.9% 정도를 공공예산에 배정했는데, 베네수엘라는 평균 8.48% 정도만 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율조차도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9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사회공공예산 증감 상황을 살펴볼 때, 감소한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온두

4)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참여민주주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 2012년 10월 교육부령 058호를 공포했다. 이 부령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학부모협회를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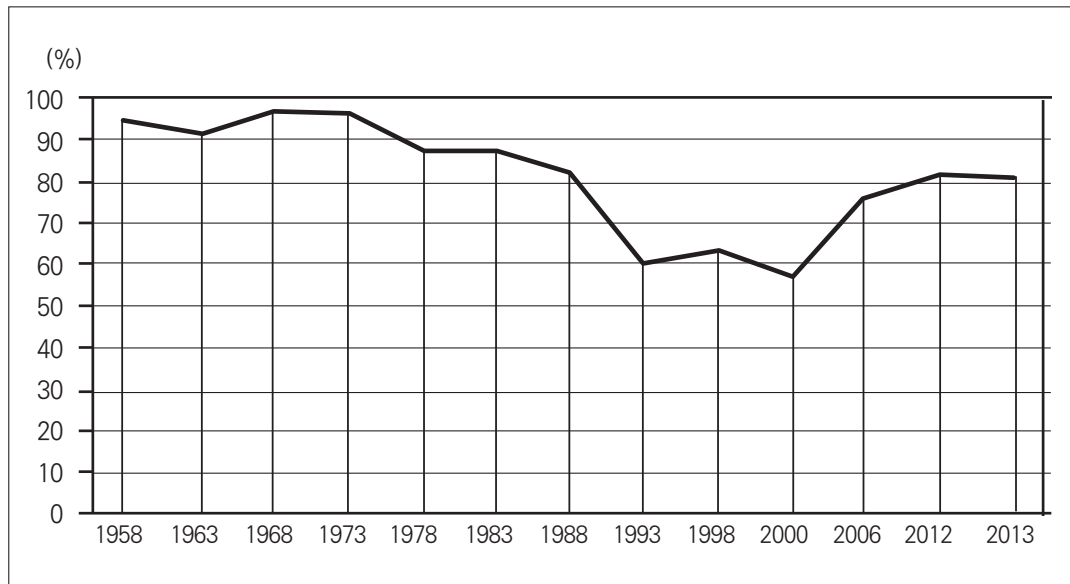
5)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사기간에 베네수엘라 초등학교 학생 중 82.9%가 공립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었다(Mariano Herrera, "El sistema educativo venezolano", Centro de Investigaciones Culturales y Educativas, s./f. [www.cice.org.ve/descargas/Sistema%20Educativo%20Venezolano.pdf](http://www.cice.org.ve/descargas/Sistema%20Educativo%20Venezolano.pdf)).

6) Leonardo Carvajal, *Para transformar la educación*,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Caracas, 2000.

라스 단 두 나라뿐이었다. 예를 들어, 1999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사회공공예산 비율은 각각 1990년 대비 7%와 4.3%, 3.5% 증가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약 0.4% 감소했다.<sup>7)</sup> 2013년 베네수엘라의 사회공공비용 예산비율이 GDP의 약 20%를 상회할 정도로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주 심각했다.<sup>8)</sup>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베네수엘라 사회의 균열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실망한 민중의 정치참여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 투표율



출처: Juan Carlos Rey, *El sistema de partidos venezolano 1830-1999*, Fundación Centro Gumilla / UCAB, Caracas, 2009 및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자료([www.cne.gob.ve/web/estadisticas/index\\_resultados\\_elecciones.php](http://www.cne.gob.ve/web/estadisticas/index_resultados_elecciones.php))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7) 위에서 언급한 통계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04*, Santiago de Chile, 2004.).

8)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04*, Santiago de Chile, 2004.

그러므로 1988년부터 1993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두 번씩이나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기간에 위에서 언급한 지표는 더욱 가파르게 하강했으며, 정치엘리트와 시민사회의 단절 역시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9년 카라카스 사태(Caracazo)가 발생하고,<sup>9)</sup> 1992년 2월 4일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했다. 1993년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이전 1988년 선거에 비해 20%가량 급락했으며, 1958년부터 1993년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무대를 주름잡던 양대 정당, 즉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과 기독교사회당(COPEI)의 권력분점체제도 종결되었다.<sup>10)</sup>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통적인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과 함께 35년 동안 유지된 권력분점체제까지 배격한 것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의 베네수엘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분열과 파편화를 겪고 있었다. 사회분열은 계도화로 진행되었고, 시위현장에서는 오늘날 정치무대에서 볼 수 있는 인종차별 구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sup>11)</sup> 정치엘리트는 인종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채 당혹스런 사회현상을 관망하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는커녕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부 야당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9)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89년 취임과 동시에 IMF의 경제적 처방을 수용했다. 금리를 자유화하고 석유가격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카라카스 시민은 1989년 2월 27일 거리로 뛰쳐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곧 약탈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사망했다. 이 사태로 발생한 사망자는 300~600명, 실종자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권력분점체제란 1958년 10월 체결된 푼토 피호(Punto Fijo) 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으로 민주혁명당과 기독교사회당은 정치권력을 분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권력분점체제가 붕괴된 때는 1993년이며,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함으로써 완전히 붕괴되었다.

11) Mireya Lozada, *Polarización social y política en Venezuela y otros países*, Fundación Centro Gumilla /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Caracas, 2011.

## II. 차베스와 민중의 시간

오늘날 베네수엘라 민중이 가장 커다란 지지를 보낸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가 바로 차베스주의(chavismo)다. 민중은 차베스주의를 통해 권력에 도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꺾박받고 약탈당한 민중 편에 서서 전통적인 정치엘리트 계급을 ‘부패의 본산’이라고 비난했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베네수엘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다. 그래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과업을 처음부터 다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80년대부터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개혁은 아주 긴박한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개혁을 시도하면서 사회계약의 내용만이 아니라 형태까지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바로 계약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차베스의 개혁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배제로 고통받던 민중의 생활 여건은 점차 개선되었다.<sup>12)</sup> 그와 함께 민중은 베네수엘라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변모해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收入)에 의존했으며, 생산시스템의 개혁 또한 성취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에는 이른바 ‘석유 파종’이라는 오래된 정책이 있다.<sup>13)</sup> 다시 말해서,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활용하여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12) 베네수엘라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이 두 번째로 많이 감소된 국가였다 (“El secreto de Venezuela en su lucha contra la pobreza”, *BBC Mundo*, 5/1/2012).

13) 석유 파종(Sembrar el petróleo)이란 베네수엘라의 작가 아르투로 우슬라르 피에트리(Arturo Uslar Pietri)가 1936년 7월 14일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다 - 옮김이.

역사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차베스는 석유사회주의<sup>14)</sup> 모델을 채택했다. 차베스는 2007년 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을 열정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모델과는 다릅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정책입니다.”라고 말했다.<sup>15)</sup>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민중과 차베스의 연대 고리가 석유 수입의 재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석유 수입을 민중에게 나눠주는 보스(차베스)에게 선거에서 표로 충성한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두 세력 간의 연대를 이해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민중 그 자체였다. 생김새는 물론 행동양식과 출신성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민중과 동일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민중 역시 차베스를 민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차베스주의를 역사적 가치와 함께 지속적인 정치·사회·문화 현상으로 여긴다면, 차베스의 민중친화적인 모습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III. 니콜라스 마두로와 차베스 없는 차베스주의

현재 ‘차베스의 아이들’은 고아 상태나 다름없는데, 이로써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일 것이다. 마두

14) 차베스는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를 선언했다. “석유는 국민의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던 석유회사를 국유화한 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러한 예산을 무료병원과 무료학교, 무료의료 등 빈민 복지에 주로 썼다. 이를 통해 차베스는 빈민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15) 2007년 7월 29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인터뷰한 내용이다([www.aporrea.org/ideologia/n98719.html](http://www.aporrea.org/ideologia/n98719.html)).

로는 차베스가 후계자로 직접 지명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차베스주의 정당을 표방한 통합사회주의당(PSUV)에는 애초부터 파벌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은 어찌면 쿠데타를 시도한 1992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이전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좌파 지식인에서부터 노조와 군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파벌이 동일한 정당 내에서 불안하게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파벌로 차베스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동료들 꼽을 수 있다. 바로 프란시스코 아리아스 카르데나스<sup>16)</sup>와 디오스다도 카베요<sup>17)</sup> 같은 인물이다. 차베스는 혁명을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건으로 시민세력과 군부의 연대를 꼽았다. 카라카스 사태부터 1992년 2월 4일의 쿠데타 시도를 거쳐, 군부가 민중의 열망을 짓밟은 2002년 4월의 역(逆)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마다 군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군부와 연대는 차베스의 존재 자체만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차베스가 사망한 지금 군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통치에 실망한 좌파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8)</sup> 무히카 대통령의 우려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야당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군부는 현 내각에서 가장

16) 프란시스코 아리아스 카르데나스(Francisco Arias Cárdenas)는 현재 술리아(Zulia) 주의 주지사다.

17) 디오스다도 카베요(Diosdado Cabello)는 현재 국회의장이다.

18) “Mujica teme un golpe de Estado militar de izquierda en Venezuela”, *El País*, Montevideo, 26/2/2015.



많은 각료를 보유할 정도로 중요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sup>19)</sup> 군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별로 좌파 지식인 그룹을 꼽을 수 있다. 2014년 6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베스의 혁명 이데올로기가 구현된 이래 처음으로 혁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불만을 제기한 인물은 놀랍게도 호르헤 지오르다니 전 기획부 장관이었다. 지오르다니는 차베스에게 충성을 다한 좌파 지식인이자 차베스 역시 전적으로 신뢰한 인물로, 차베스 정부에 이어 마두로 정부 초기까지 기획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두로 대통령의 각료 임명에 반발하며 혁명의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지오르다니는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고 리카르도 메넨데스를 기획부 장관에 임명하자 「역사에 대한 증언과 책임」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sup>20)</sup> 이 기고문에서 지오르다니는 ‘차베스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한 사건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차베스가 사망한 이후 혁명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1993년 수감생활을 하던 차베스를 만난 이후 차베스가 서거할 때까지 동고동락한 인물이자 사회주의 투사를 자처한 사람이 ‘볼리바르 혁명의 방향성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오르다니는 포스트 차베스주의가 근본적으로 표류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및 중앙은행(BCV)과 같은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19) 현재 28명 장관 중 8명이 군부 출신이다.

20) 2014년 6월 18일 호르헤 지오르다니(Jorge Giordani)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뉴스 포털 사이트인 아포레아(Aporrea)에 「역사에 대한 증언과 책임」(Testimonio y responsabilidad ante la historia)란 기고문을 발표했다 ([www.aporrea.org/ideologia/a190011.html#sdnotapie12anc](http://www.aporrea.org/ideologia/a190011.html#sdnotapie12anc)).

- 야권이 비판할 때 차베스는 이에 맞서 의견을 피력하고, 야당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이 훨씬 더 힘들어진 현재,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진하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적합한 재정운영 대신에 대중융합적인 경제조치만 남발하고 있다.<sup>21)</sup>
- 대규모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을 관료로 임명하고 있으며, 경험 없는 간부진이 국가 예산을 증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차베스 정권에 참여한 인물이 공공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천명해야 한다.<sup>22)</sup>

지오르다니가 기고문을 발표한 지 몇 달 후인 지난 2014년 11월, ‘사회주의 물결’(Marea Socialista) 그룹이 통합사회주의당(PSUV)에서 제명당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통합당은 다양한 세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정당이다. 차베스주의 좌파라고 부르는 노조와 학자 및 지식인, 즉 사회민주주의와 개혁적인 혁명가에서부터 일부 보수세력과 심지어는 반동세력-좌파진영이 흔히 사회개혁에 저항하는 신흥 ‘볼리바르주의 부르주아계급’(boliburguesía) 또는 ‘내생적 우파’라고 부르던 세력-까지 폭넓게 참여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에서 좌파 세력이 쫓겨난 것이다. ‘사회주의 물결’은 좌파세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다. 이 그룹은 ‘관료주의도 자본도 반대한다. 우리에게 사회주의와 더 많은 혁명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볼리바르 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결국 차베스주의를 떠나 가장 강력한 비판 그룹이 된 것이다.

21) 베네수엘라는 지난 10년 동안 환율통제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물품수입대금을 핑계로 너무 쉽게 외환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 Jorge Giordani. *op. cit.*

#### IV. 지표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비판받아 마땅한 현실인가?

마두로 정부가 곤경에 처하면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제 유가는 폭락하고 국가 부채는 증가했으며, 약품과 식료품 같은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야당과 기업주는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과 환율규제 시스템을 비난했다. 가격규제 정책은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환율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생필품 수입을 위해 꼭 필요한 외환조차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당 및 다국적 기업의 비난에 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요란한 경제 논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항만 경제’ 시스템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대부분 수입에만 의존하고, 수입 비용 또한 대부분 석유 수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차베스 정권의 토지와 민간 기업 국유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국가계획과 규제조치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주의로 이행이 생산력을 대폭 증대시켰거나 합작기업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창출했는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식량 주권이 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현재 생필품 부족, 고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연간 60%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며, 그 추세 또한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sup>23)</sup> 그래서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구매제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23)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1월까지 베네수엘라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60.1%에 이른다(BCV, “Inflación acumulada de Venezuela a noviembre es de 60,1%”, *El Nacional*, 30/12/2014).

있다.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하루 또는 일주일 분량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식량과 의약품처럼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중은 매일 긴 줄을 서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책의 실패를 드러낸다. 최소한의 생필품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전략이 모두 실패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정책수단과 자원의 불투명한 운영형태이다.<sup>24)</sup> 하나의 예로, 3단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환율시스템만 살펴봐도 문제는 심각하다. 각 단계에 따른 환율 차이로 인해 외환이 이탈하고 있으며, 부패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볼리바르 혁명과 함께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폭력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 베네수엘라 국립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 사건의 증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한 해 동안 살해당한 사람은 19,000명이 넘었다.<sup>25)</sup>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밝힌 통계 숫자 역시 똑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살인사건 빈도가 높은 두 번째 국가로, 인구 100,000명당 53.7명꼴로 살해당하는 국가인 것이다.<sup>26)</sup>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빈곤일 것이다. 한때 개선되던 빈곤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국내 연구자는 물론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CEPAL)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빈곤 상태는 1998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악화되었다.<sup>27)</sup>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를 곧이

24) 2014년 12월 3일 『아포레아』지에 발표한 닉메르 에반스(Nicmer Evans)의 「이제는 시민법정으로!」(¡Auditoria Pública Ciudadana ya!)에 따르면, 정부가 2,590억 달러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다.

25) “Violencia adolescente”, *El Universal*, 22/3/2015. 그 이후의 상황은 공식 통계의 부재로 알 수 없다.

26) UNODC, “Global Study on Homicide”(www.unodc.org/gsh/en/data.html)

27) Luis Pedro España, “Pobreza y programas sociales”,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s./f.(www.rectorado.usb.ve/vida/sites/default/files/pobreza.pdf).

곧바로 믿을 수는 없다. 빈곤 감소는 차베스주의의 첫 번째 목표이자 가치였다. 그런 기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악화된 현 상황 앞에서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민중이 더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당한 과거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층 민중에게 경제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이전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악의 초등교육과 낮은 정치참여율 등이 차베스주의를 등장하게 만들었다면, 현재 고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사태,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 공공자원의 불투명한 운영 등이 마두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미 극복했다고 여긴 빈곤 문제가 퇴보일로를 걷는 상황이 현 마두로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객관적인 조건이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차베스주의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차베스주의 변혁 운동이 민중이 요구한 주관적 조건까지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권력관계를 진정으로 변혁시킬 사회기반조직을 확충했는지, 사회적 차베스주의(Chavismo social) 확대, 즉 민중을 조직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관적 조건은, 실용성을 가장한 정부의 관료주의와 정치적 구호에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람시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정치경제적 지배계급, 즉 보수반동주의자와 물질만능주의자는 물론 파벌주의자도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건재하다. 하지만 반드시 성취해내야만 하는 사회, 즉 검소와 연대에 기초한 소박한 사회는 여전히 도래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

당은 물론 야당까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를 것이다.<sup>28)</sup> 하지만 정당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베네수엘라에서는 후보자의 경제적 능력이 경선 참여와 선거 출마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차베스주의 정당이나 야당 모두 동일하다. 비록 원인은 서로 다를지라도, 두 정당 모두 유권자의 대규모 불참으로 인한 민심왜곡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간 합의는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유권자는 물론 선출된 의원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지난 과거사만으로도 충분하다.<sup>29)</sup>

지금 야당 진영에서는 레오폴도 로페스<sup>30)</sup> 전 차카오(Chacao) 시장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페스는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수감 중

28)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6월 28일, 야당인 민주연합원탁회의(MUD)는 5월 17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29)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7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대표자를 상실했다. 여당과 야당을 합쳐 총 31명의 하원의원이 다양한 이유로 사직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각료에 취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원은 상급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했다. 이에 2015년 4월에 발표한 ‘의회 모니터’(Monitor Legislativo)를 보면, “의원은 의회를 발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원에서 두 명의 의원이 사퇴하면서 두 곳 선거구의 대표자도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30) 레오폴도 로페스(Leopoldo López)는 2000년 수도 카라카스를 구성하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부유한 차카오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차베스 반대의 선봉장으로 활동했다. 준수한 외모와 날렵한 몸매에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공공정책학 석사, 국영석유회사의 선임 경제분석가와 베네수엘라 명문대 경제학 교수 출신, 거기다 베네수엘라 최고의 명문가 후손이라는 배경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케네디로 평가받는다. 베네수엘라 건국의 아버지이자 제2대 대통령인 시몬 볼리바르의 방계 후손이고, 초대 대통령 크리스토폴로 멘도사의 증손이라는 점에서 “출신 가문만으로도 유럽계 정치엘리트의 일원으로 혜택을 누리는” 인물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로페스가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중요 조성에 일조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 이유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합법적인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에 관여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이다. 로페스는 2014년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수배를 받다 투옥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야권의 수장이던 엔리케 카프릴레스 대신 “마두로에 반대하는 야권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 옮긴이.

인데,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의 대표적인 리더로서 중도층을 대변한 엔리케 카프릴레스<sup>31)</sup>는 로페스에게 점차 밀리는 추세이다. 한때 차베스주의자이던 엔리 팔콘<sup>32)</sup> 라라(Lara) 주(州) 주지사 역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제3 지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 역시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의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최근 선거구를 대폭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sup>33)</sup> 등 일부 야당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너무 다르다. 여당이 기존 하부 조직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면, 야당은 반대로 ‘차베스주의 민중’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다가갈 것인지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31) 야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미란다 주 주지사는 대선에서 두 번이나 패배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야권 통합후보로 나섰지만 4선을 노린 우고 차베스에게 패배했으며, 차베스가 사망한 뒤 시행한 2013년 대선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패배했다. 카프릴레스는 유럽계 이민자 후손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불과 26세의 나이에 수리아 주(州)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2008년 집권당의 유력 인사를 꺾고 주지사 자리를 꿰찼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해 한때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었지만, 2015년 12월 6일의 총선에서 구속 중인 레오폴도 로페스 대신 야권 연대 조직인 민주연합원탁회의(MUD)를 이끌고, 전체 167개의 의석 중 112석을 석권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11석을 넘는 의석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투표까지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 옮긴이.

32) 엔리 팔콘(Henri Falcón)은 과거 차베스의 군 동료였으나 2010년 결별했다 - 옮긴이.

33) 여성 야당 의원이었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는 2014년 미주기구(OAS) 회의에 참가해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 옮긴이.

## V.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베네수엘라 정치 지형에 차베스주의가 등장하면서, 각 정당이 오랜 기간 망각한 책임이 새롭게 떠올랐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새로운 정당과 시민사회를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랬다면 사회와 문화를 억누르던 단조로운 색깔의 낡은 이야기는 분명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원론이 지배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야당은 차베스주의에 대해 모호한 방식으로 비난만 퍼붓고, 시민사회 또한 이런 야당의 부적절한 대응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며 비판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베스주의가 아닌 좌파세력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당과 야당이 뒷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의 극단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는 체제비판적인 좌파가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非)차베스주의 좌파와 진보주의자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야당과 차베스주의 세력의 대결 논리에 굴복한 채, 좌파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반동적 설교를 하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전에 포기한 토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혁적 좌파로서 길을 걷는 것이다. 이 길은 샹탈 무페<sup>34)</sup>가 말한 것처럼 갈등을 거부하거나 위태롭고 반정치적인 변명을 일삼기보다는,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풍요롭고 건설적인 새로운 변증법을 생산하는 길이다. 그렇게 탄생할 새로운 좌파는 차베스주의의 문제점과 함께 우리의 오랜 희망사항, 바꿔 말해서 보수적 시스템과 논리를 극복

34) Chantal Mouffe, “Unser Gegner sind nicht Migranten, sondern die politischen und ökonomischen Kräfte des Neoliberalismus”,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30/3/2015.



할 수 있는 담론, 진정으로 전복적인 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非)차베스주의 좌파와 중도좌파 정당이 그들의 담론에서 베네수엘라 사회를 다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데올로기와 역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가경제기획에 실용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며, 정당의 형태 또한 득표용이나 선거용 기관이 아니라 민중을 재조직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4공화국의 마지막 기간에 단 몇 사람만이 감당하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우리는 공동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후, 우리는 정치엘리트가 아주 간단하게 부르는 제4공화국, 젊은 세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제4공화국의 의미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세력은 차베스주의에 대한 비판만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즉, 차베스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마비상태에 빠져 국가 운영에 유해한 인물 및 행동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덧붙여, 인물주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독재, 후견주의(clientelismo) 등의 비판이 이어진다.

국가를 진정으로 통합시키는 정부는 엘리트만의 합의로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부는 다양한 국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탄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야당인 민주연합원탁회의(MUD)는 물론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 역시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단지 소수의 세력만 대변할 뿐이다. 그러는 동안 다수의 민중은 자신을 대변해 줄 새로운 정당을 기다릴 것이다.

김용호 옮김

